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성재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된 작금의 국가경쟁력이 교육경쟁력이라는 데 의미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가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명제는 반증되기 어렵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의 최근 화두는 교육비리다. 대통령과 장관이 교육비리를 척결하고 교육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설 정도로 우리의 교육계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반응은 교육비리의 본질을 비켜나가고 있을뿐더러 위선적이다. 교장 및 교육장 공모제, 교원평가제 도입이 교육개혁 정책의 전부다. 대학의 비리에 대한 대책은 없다.

교육비리란 과연 무엇인가? 초·중·고등학교 교실이나 대학 강의실 내에서 일어나는 부실한 교육이 아니라, 학교 경영주체가 정·재계와 결탁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교육비리다. 교장과 교원에게 그러한 비리를 저지르지만한 역할은 턱없이

부족하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나,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육 관련 정치인이나 관료가 교육비리를 저지른다. 교육비리는 교육주체가 아니라 교육기관 경영자가 부정한 돈을 매개로 교육체계를 부패의 구렁텅이 속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그래서 교육비리는 교육학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정치경제학의 문제다.

구체적으로 부정입학, 교원의 부정 임용 및 승진, 교육관련 매수, 정당 및 정치인 스폰서링, 학교 경영자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한 자금 횡령 및 축재 등의 교육비리는 모두 부정한 돈거래를 통해 일어난다. 이러한 부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한국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

교육비리의 정치 경제학

하는 사립대학이다. 돈거래의 규모가 크고 학교법인의 불투명한 대학경영이 그 원인이다. 무엇보다도 비리 사립대학의 뒤에는 언제나 부도덕한 정당과 정치인이 그림자처럼 붙어다닌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여당이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운영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시도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6개월 이상 국회 회원을 거부하면서 한국정치를 마비시켰다.

교육비리가 극한 상황에 이르면 학교 구성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학교 경영주

체가 강제로 추방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극적인 분쟁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다룬다. 불행하게도 정부여당은 사분위를 수십 년 전에 추방된 구 경영진과 가족이 쉽게 복귀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 또다시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이 지역 대학인 조선대를 비롯해서 몇몇 사립대학에 구 경영진을 일부 복귀시켰다. 해당 대학 구성원들은 현

정부여당이 국가경쟁력 창출의 산실인 교육기관을 비리사학으로 환원시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현 정부가 무리하게 비리 경영진 복귀를 돕고 있는 행태를 보고 비리 사학의 전형적인 부패행위인 정당과 정치인의 스폰서링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정부여당은 교육비리가 무엇인지 분명한 개념정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자금 안정적으로 마련할 목적에서 스스로 교육비리를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교육비리의 본질과 현실을 외면한 채 새발의 피나 다름없는 일부 비리 교장·교원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행위는 위선이다. 서울 소재 '열린사이버대학' 이사장의 교비횡령이 한 정치인의 정치자금 확보를 위해 자행되었다는 언론보도는 한국의 모든 학부모들을 경악케 한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정부여당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무한 정치게임으로 농락하지 말기 바란다.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사회과학대학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금호타이어 공장가동 즉각 재개돼야

금호타이어 광주 1공장과 곡성 1공장이 원재료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고 한다. 그동안 우려되는 점은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다. 회생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에 얽힌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악재까지 겹쳐 걱정이다. 금호타이어는 21일부터 이들 공장에 대해 휴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사 협상 지연으로 채권단의 긴급 자금 지원이 미뤄지면서 원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는 31일까지 가동이 전면 중단되며 21일부터 20일까지 50% 가동, 2일부터 정상 가동한다고 하나 이는 불투명한 상태다.

금호타이어의 가동중단은 워크아웃 상태인 회사는 물론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당장 타이어 생산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돼 국내 판매망과 해외 수출선이 끊길 수 있다. 신인도 추락에 따라 회사 정상화는 그만큼 멀어진다. 뿐만 아니라 수 개월째 대금을 받지 못해 이미 비량 끝에 몰린 270여 개의

협력업체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 수 천명에 이르는 금호타이어 및 협력업체 종업원들도 길거리에 나왔게 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지역경제가 금호타이어 사태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채권단과 노사는 공장 가동을 즉각 재개해달라 한다. 회사가 어떻게 되든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회사가 존재해야 채권단도, 노사도 있는 것 아닌가. 채권단은 노사협상과 관계없이 자금지원에 나서고, 노사도 회사부터 살리는 방향으로 협상을 당장 끝내야 한다.

정부도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호타이어 사태에 대해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 개입, 정상화시켜야 한다. 금호타이어 문제는 금호라 는 일개 그룹이 아닌 광주·전남 지역경제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오장원



이제 대학은 더 이상 외부환경과 경쟁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학생인구의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와 같은 근본적 이유를 포함한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교육시장의 개방, 정부의 재정지원 한계, 대학 간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지속, 학생과 학부모의 정교하고 정당하며 세련된 요구,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 등 대학이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헤쳐나가야 할 외부 환경변화는 더욱 복잡하고 역동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규모가 큰 대학들은 이러한 외부 현실들을 직감하고 있지만

현실이다. 대학운영의 기동성과 유연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규모 대학일수록 개혁의 성과가 구체적인 형태로 대학에 반영되기 쉬운 반면에 재정과 조직이 비대해진 대규모의 대학은 경직성으로 인해 대학혁신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쉬운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특성화 대학의 변화와 혁신 가능성은 대규모 대학보다 유리할지언정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대학들이 위기라고들 하는데, 발상을 전환해 보면 급변하는

기고

김관중



UN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는 지난 2007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0년간(1906~2005) 전세계 평균기온이 0.74℃ 상승하였고, 화석연료에 의존한 대량소비형 사회가 계속된다면 금세기말(2090~2099) 지구의 평균 온도는 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사회가 기후변화 전환경로로 변경된다면 1.1℃, 18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지구 온도가 1.5~2.5℃가 상승하면 동·식물의 20~30%가 멸종위기에 처하고, 아프리카는 2020년까지 7천 500만~2억 5천만명이 물부족으로 고

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가뭄이 시달리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또한 최근 3년간 강수량이 평균을 훨씬 밑돌면서 2009년 2월에는 가뭄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물효율이 소비자와 주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략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 나라의 물관리 여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100년간 평균기온은 1.7℃ 상승하여 2100년에는 국토의 20%가 아열대 기후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70, 80년대에 비해 2000년대 홍수피해는 4.5배 증가하였고(연평균 1조 3,500억

40년만에 지역민 품에 돌아온 삼학도

목포 삼학도가 '희망의 섬'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요트 마리나 시설이 문을 열었고 섬의 옛 모습도 살아나고 있다. 지난 2007년 소 삼학도 공원이 시민들에게 개방된데 이어 최근 중·소 삼학도 사이에 수로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2000년부터 시작된 삼학도 복원사업의 1단계가 완료됐다. 지역민들의 어환이 서려있는 삼학도가 40년만에 섬으로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삼학도에는 앞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과 어린이 바다학습 체험관, 해변광장 등이 들어선다. 이들 시설들이 완공되는 2011년이면 삼학도가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의 근대사를 '간척의 역사'라 할 만큼 목포는 간척사업과 연관이 깊다.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간척사업으로 목포의 지형은 크게 변화했다. 삼학도는 1960년 후반부터 섬 외곽에 독을 쌓고 안쪽 바다를 매워 육지로 변했으

며,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삼학도 복원사업에는 1천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열악한 목표시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규모였다. 사업 초기 일부 시민단체들이 재정 부담을 우려해 복원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고도 본래 모습을 되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삼학도는 환경보존의 교육장이다. 무분별한 간척사업으로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체험 장소인 셈이다. 이제 석탄부두와 한국 제련 사업 등 일부 지장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과제로 남아 있다. 인위적인 시설물을 새롭게 만드는 것 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근대 유산을 살린 체험 공간을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한경쟁시대 지방 대학의 생존법

그에 따른 적절한 변신을 하기에는 이미 몸집이 너무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경쟁적 변화를 따라가는데 버거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대학 교육은 '교수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이 이제는 더 이상 상아탑으로서의 기능만을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이제 대학은 고객이 누구이며 그 고객은 대학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한다. 게다가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자신있게 도전하고 또한 무리 없이 적응하기 위한 최선의 취업준비 교육이 실행돼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주면에 충실한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대학은 교육과정을 신설 혹은 폐기하기도 하고 교수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기도 함과 동시에 학사운영 시스템도 순발력 있게 변화시키는 등 대학은 한시도 쉬없이 시선을 최종 고객인 학생들로부터 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많은 대학이 이러한 소명을 위해 하드웨어 변화는 시도하고 있지만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중요한 내부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21세기 사회 환경에서는 지방에 소재한 소규모 대학들의 경우 위기를 기회로 승화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측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를 반증하는 좋은 사례로 필자가 총장으로 있는 광주여자대학교의 경우, 지방 소재 유일의 여자 사립대지만 규모가 큰 대학에 비해 조직의 유연성과 빠른 의사 결정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공적인 지방대학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다.

몇 가지 예로, 전국 최초로 4년제 미용학과를 설립해 수년간 중등 임용고시에서 전국의 미용교사를 100% 합격시키고 배출시켰다. 또한 지역 유일의 4년제 스텐디드스학과를 신설해 졸업생 배출 2년 만에 국내의 항공사 스튜어디스 배출이 30명을 넘어섰다. 또한 대학 전체를 의료보건,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 미용분야를 포함한 실용학문으로 특성화시키며 매년 신입생 등록률이 10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이제 대학들은 진정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했으며 향후 몇 년 안에 세계 초일류 대학들의 국내 고등 교육시장 진출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자지만 강함' 대학만이 험난한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광주여자대학교 총장>

농촌체험 프로그램 아이들 교육에 효과적

작년에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다. TV에는 누렇게 익은 황금 들녘의 장면이 나왔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기 개그맨들이 나와서 벼를 베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우리나라 농촌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는 판국에 유치원생도 아는 인기있는 유명 개그맨들이 나와서 벼농

사는 물론 온갖 농촌체험을 방송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농촌에 대한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본다.

이제는 아이들뿐 아니라 교사들을 상대로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교육홍보를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차고 좋은 농촌교육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김경자·순천시 안동동

기후변화와 수자원 관리

통발게 된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 멕시코시티는 강수량 부족으로 극심한 물부족 사태에 처해 있는데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용 수도요금을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50센타보(0.5 페소)에서 1.41 페소까지 차등적으로 인상하고 갈수기인 3월부터 6월까지의 수도요금을 추가적으로 10% 인상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본에도 '물쓰듯 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절수에 대한 의식이 희박했는데 최근에는 환경의식이 높아진데다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수도물을 절약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호주는 2002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까지 부족해지면서 수자원 확보와 물절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다. 호주 수자원의 절반 이상을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대부분지역에서 개인 주택의 세차가 금지돼 있으며 정원에 물을 주는 것도 주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2013년까지 50개주 가운데 36개주가 물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서부지방의 가뭄은 심각한 상태로 텍사스주는 2007년

원), 70년 이후 5~7년 주기로 다목적댐에 가뭄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뭄은 용수부족, 농작물 수확량 감소, 수질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상수도보급률은 7개 특·광역시까지 92.7%인데 비해 전 지역은 47.4%로 저조에 따라 50센타보(0.5 페소)에서 1.41 페소까지 차등적으로 인상하고 갈수기인 3월부터 6월까지의 수도요금을 추가적으로 10% 인상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정수장 및 마상상수도 등은 수도시설이 노후화되고 시설운영도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적정규모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효과도 유도하고 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하는 것이 기후변화 시대에 사는 지혜가 아닌가 싶다.

<K-water 전남지역본부 관리처장>

백화점 상품권, 지폐 크기에 맞춰 작게 만들었으면

현재 새로 발행해서 쓰이는 5천원 짜리와 1만원 짜리 지폐는 과거에 쓰던 것보다 크기가 확실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백화점과 할인마트 쇼핑점 상품권은 과거 지폐처럼 너무 넓고 크다. 상품권이 이렇게 크다 보니 지갑에 넣기도 어렵고 설사 들어간다고 해도 지갑 내부를 뒤덮어 볼품이 없었다. 심지어 요즘 지폐크기에 맞춰 제작되는 지갑들도 많기 때문에, 상품권은 지갑에 넣을 수가 없어 불편하다.

▲유근우·광양시 황길동

상품권은 그 쓰임새만으로도 현금과 똑같고, 당장 사용치 않고 가지고 다닐 경우 그대로 풀죽있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뭔가 볼품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불편함 때문에 그냥 얼른 써버리고 싶은 마음뿐이다.

기왕지사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상품권이니 모든 백화점과 대형 유통점들은 현재의 커다란게 제작된 상품권을 현금 지폐의 크기처럼 줄여줬으면 좋겠다.

無等鼓

절기는 청명(淸明)을 향해 달려가는데 떠나가는 통장군의 발걸음이 무겁다. 여기저기 춘설을 흩뿌리고 다니며 머뭇거리다. 하지만 대자연의 순환을 누가 거스르랴. 하루가 다르게 부풀어 오르는 무등산자락 버드나무 꽃눈을 보니 바야흐로 봄은 봄이다.

봄은 색깔로 우리 곁에 온다. 대지는 벌써 녹색 향연을 준비하고 있다. 녹색은 생명과 젊음, 희망을 상징한다. 마음을 싱겁고 평온하게 해주는 자연의 빛깔이다.

그 의미는 사용 주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70년대에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벼를 내세워 '녹색혁명'을 꾀했다. 그린피스(Greenpeace)는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술지배는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녹색 가치를 들었다. 그런가 하면 소수병도 초록색으로 만든다. 독한 소수가 자연친화적이며 건강에 해롭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다.

'녹색'이 다시 글로벌 화두가 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녹색기술에 1

천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녹색 바람을 주도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녹색 고양이'에서 찾자는 '녹묘(綠描)론'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야전으로 채택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기본법도 나왔다. 동시에 녹색산업을 비롯 녹색경영, 녹색기술, 녹색에너지 등 그린코드의 용어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과일이 우려되는 '신드롬' 수준이다.

반면 거창한 구호에 비해 철학은 빈곤하다.는 지적이 많다. 4대

강 사업의 강행과 그린벨트를 풀어보 급자리 주택을 짓는 것이 녹색성장이나는 비아냥이다. 조화와 균형은 녹색의 또 다른 상징이다. 녹색성장이 녹색과 성장의 조화보다는 성장을 우선하면서 녹색을 치장으로 개워 넣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기우일 뿐일까.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경 제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 화 생 활 부 2200-661 여 령 매 체 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 영 지 원 국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미 케 영 국 227-96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F A X 02-773-9331>	문 화 회 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